무안공항 국제선 유일 항공사 제주항공에 쏟아진 불만 목소리

광주관광협회 불만 창구 열자
"잦은 지연에 부실 서비스" 민원
노선 증편 활성화 찬물 우려도

지역 여행업계를 중심으로 저비용항공사인 제주항공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제주항공이 무안국제공항의 유일한 국제선 정기 노선 운항 항공사인 점을 들어 자칫 무안공항 활성화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항공 이용 불편 사례 알려주세요"=24일 광주시관광협회와 지역 여행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7월 말부터 제주항공을 이용하는 광주지역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서비스 불만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광주시 관광협회가 항공사에 대한 여행업계의 불만 실태 조사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제주항공의 국제선 정기노선 신규 취항과 증편 운항 등으로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항공기 지연·연착 및 부실한 서비스에 대한 불만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공식 창구를 마련했다는 게 관광협회 측 설명이다. 협회는 지역 여행업계의 불편 사항을 접수받아 항공사측에 전달해 보다 나은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창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무안공항 및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협회 차원에서 여행업계 목소리를 청취, 불만을 해소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다.

무안공항 이용객은 지난해 처음으로 50만명(54만30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올들어 60만명을 넘어서는 등 서남권 국제공항으로 본격 도약하고 있다. 국제선도 중국 옌지(延吉) 노선이 새로 취항하는 등 중국·일본·대만·태국·베트남 등 12개(정기노선 10개·부정기 2개)에 이른다

협회가 불만 창구를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지역 여행업계를 중심으로 제주항공의 지연·연착 및 부실 서비스 사례도 알려지고 있다.

우선, 지난 8월 2일 오전 9시 30분 무안을 출발, 오전 11시 50분 다낭에 도착할 예정이던 제주항공이 연결편 지연으로 5시간이나 늦게 다낭으로 떠나면서 10여명의 여행객들이 나트랑으로 가는 베트남 항공기를 놓친 사실이 알려졌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울란바토르에서 무안공항으로 오던 제주항공편이 현지 기상 사정으로 예정시간보다 7시간 늦게 도착하면서 일부 이용객들은 새벽, 무안공항을 나가는 교통편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었다는 민원도 전해졌다.

여행업계에서는 이같은 지연·연착에도 '항공기 사정으로 늦어진다'는 안내 외에 다른 항공사와 달리, 고객 불만을 누그러뜨릴 별다른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불만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항공측은 이와관련, "다낭행 항공기 지연은 마카오에서 오던 연결편이 현지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사전에 고객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안내했다"면서 "항공기 지연에 따른 고객 보상 규정이 있긴 하지만 기상상황으로 인한 전재지변의 경우 별도 보상 규정이 없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 일부 기내 면세품 비싸"=제주항공이 지난 6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기내 면세품 중 일부 상품 가격이 다른 항공사에 견줘 비싸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국내 여행객들이 많이 구입하는 위스키 발렌타인(30년산 700㎖)의 경우 이달 기준으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이스타항공은 할인가격을 적용하면 276달러(32만8500원)로 구입할 수 있는 반면, 무안공항을 오가는 제주항공에서는 할인가에도 335달러를 줘야 살 수 있다.

발렌타인 21년산(700㎖)과 조니워커블루(750㎖)도 비슷하다. 아시아나·대한항공, 이스타항공에서는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91달러(10만8500원)에 발렌타인 21년산을 구입할 수 있는 반면, 제주항공은 할인에도 111달러를 줘야한다. 조니워커블루도 제주항공에서만 149달러를 줘야 하고 다른 3개 항공사에서는 121달러(14만4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제주항공을 제외한 국제선 노선이 무안공항에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안공항 여행객들은 더 비싼 돈을 내고 인기 주류 면세품을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제주항공측은 이와관련, "자사가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면세업체인 그랜드 면세점을 통해 위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항공에서 가격을 책정하지 않는다"면서 "상품별 할인 프로모션 진행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 타사보다 더 저렴한 상품도 있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여수산학융합지구 개교 및 준공식이 24일 여수국가산단에서 열렸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 권오봉 여수시장, 기업대표 등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여수산학융합지구 준공·산학융합캠퍼스 개교

여수 국가산단 삼동지구에
대학·기업, 인재양성·연구개발

대학과 기업이 화학·금속 소재산업 인재 양성, 연구개발, 채용까지 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여수산학융합지구'가 24일 준공됐다. 이날 여수 국가산단 삼동지구에 자리한 여수산학융합지구 내 산학융합캠퍼스 개교식도 함께 열렸다.

준공식과 개교식에는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승용·이용주 국회의원, 정병석 전남대 총장, 권오봉 여수시장과 각급 유관기관, 기업대표, 시민,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여수 산학융합지구는 2018년 2월 첫 삽을 떴다. 총 사업비 405억원을 들여 지난 6월 산학융합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준공했다. 부지는 4704㎡이고 건물은 9350㎡다.

강의실과 연구실, 실험실습실은 물론 도서관, 동아리실, 학생식당 등을 고루 갖춰 여수산단 내 고용, 생산, 교육, 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속성장형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캠퍼스와 연계된 기업연구관에는 50개 기업 150여 명의 연구인력이 입주해 대학과 연구개발을 공동 수행하게 된다. 여수산학융합캠퍼스는 학기가 시작된 지난 9월 2일부터 석유화학 분야와 플랜트분야 등 모두 5개 학과 200여 명의 학생이 강의와 실습 등 정규 학위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5개 학과는 화학안전학과, 환경시스템학과, 화공생명학과, 기계시스템학과, 플랜트학과다.

산학융합지구는 산업단지에 대학캠퍼스를 이전하고 기업연구관을 조성해 산업 현장에서 'R&D-인력양성-고용'이 선순환하는 체계로 구축됐다. 현장 맞춤형 교육, 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특성화고 선취업-후진학 과정 운영 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윤병태 부지사는 "기업 맞춤형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전남지역 우수한 청년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취업하는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학융합지구는 여수를 비롯해 전국에 13개소가 운영되거나 조성 중이다. 전남에서는 대불산단에 대불산학융합지구를 2015년 9월 조성해 목포대 6개 학과(455명)가, 나주 혁신산단에 나주에너지밸리산학융합지구를 올 상반기 조성해 이번달 목포대와 도립대에서 4개 학과(377명)가 각각 이전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139억원 확보

병원선·보건기관 신증축 추진

전남도가 보건복지부 '2020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공모에서 병원선 건조, 보건기관 신증축 등 사업이 선정돼 139억원을 확보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농어촌 보건기관의 노후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해 농어촌 주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 지난 1994년 도입됐다.

전남지역 주요 선정 사업은 ▲병원선 건조 설계비 등 3건 ▲무안군 보건소 이전 신축, 광양시 성황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 등 시설 개선 21개소 ▲물리치료장비 등 의료장비 95개소 ▲방역차량 등 12대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노후 병원선 건조 국고 확보에 행정력을 쏟은 결과 병원선 전남511호 대체선박 건조 설계비 6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시도하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신축사업에 순천시, 담양군, 무안군 등 6개소 총 29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진료뿐만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도민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안병옥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농어촌 주민의 건강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특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온 그동안의 노력이 성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보건기관 시설·장비 확충을 통해 도민 건강 증진에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수영대회서 사용됐던 냉장고 2000대 조직위,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기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사용됐던 냉장고 2000여 대가 광주 시민들에게 전달된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광주수영대회에서 사용됐던 냉장고 2000여 대를 광주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한다고 24일 밝혔다.

기부 냉장고는 대회기간 동안 선수촌 숙소와 경기장에서 사용됐던 것으로, 대회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조직위원회에 전량 후원한 것이다.

조직위는 대회기간 사용 후 지역사회 기부를 염두해 두고 관리에 노력해 왔으며, 대회가 끝난 뒤 사용했던 냉장고의 내·외부를 세척하고 새롭게 재포장했다.

기부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시설 등으로 자치구를 통해 선정했으며, 삼성전자 전문 물류업체가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조영택 조직위 사무총장은 "2019광주세계수영대회 성공적 개최에 많은 성원을 보내준 광주 시민들의 정성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수출중소기업에 34억원 수출진흥자금 지원

광주시는 자금난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34억원 규모의 수출진흥자금 저리 융자에 나선다.

융자 지원 대상은 광주 관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다.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거나 ▲2018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및 전시박람회 참가 등 수출 관련 지원 사업 참여업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융자금은 해외시장개척,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 해외규격인증 등 수출 활동 관련 사업추진에 활용된다. 지원 한도는 기업당 3억원 이내로,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김형호 기자 khh@